

전주 9개 보훈단체 한 곳에 모여

시, 보훈회관 개관식... 경원동 새 보금자리에 입주 보훈단체·가족들의 사랑방 역할... 교육의 장 활용

전주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위해 새로운 보훈회관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30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광수 국회의원,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과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보훈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명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우하는

복지시설인 보훈회관이 문을 열면서, 그간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전주시역 9개 보훈단체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모이게 됐다.

새로운 보훈회관은 완산구 현무길 31-23(경원동3가)번지에 부지 429.4㎡에 건물면적 1,557.79㎡(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9개 사무실과 2개 회의실 등을 갖췄다.

옛 회관의 경우 비좁은 청사로 인해 상이군경회와 전불군경유족회, 전

불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보훈단체만 입주했으며, 광복회와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전자회 등 나머지 5개 보훈단체들은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했었다.

시는 이곳을 보훈가족들의 친목 강화와 국가 유공자들의 교류의 장은 물론, 시민들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을 알리는 교육공간이자 화합공간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전북지역 4만여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국립보훈요양원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시와 국가보훈처는 오는 2020년까지

지 복권기금 356억원을 투입해 약 1만㎡(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장기보호 200명, 주간보호 25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실과 작업치료실 등을 갖춘 보훈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오늘날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국가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라며 "전주시 보훈회관과 향후 조성될 전북권 보훈요양원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이 존경받고 예우 받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자원봉사 결산대회 지난 30일 전주하산체육관에서 70여 개 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4회 전주 자원봉사 결산(한마음)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봉사자들에게 표창을 전달하고 있다.

김제 봉남 출신 조용식 서울청경무부장 치안감 승진 내정

경찰청이 최근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김제시 봉남면 출신 조용식 서울청경무부장이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지난 1987년 경찰에 첫 발을 내딛던 조용식 내정자는 경기 일산 수사과장·전북청 경무과장·김제경찰서장·정부서울청사경비대장, 서울 수서경찰서장,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로써 2015년 강인철 현 전북경찰청장 이후 맥이 끊겼던 전북 출신 치안감이 배출됐다.

/송효철 기자



'나도 전주시민'



시, 전북현대 K-리그 최강전서 최강희 감독에 명예시민증

14년 동안 전주 시민과 함께해온 최강희 감독이 전북현대 모터스 감독이 전주시의 명예시민이 됐다.

전주시는 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2018 프로축구 K-리그 시즌 마지막 경기 후 치러진 최강희 감독 고별행사에서 지난 14년간 전북현대를 이끌며 전주시가 대한민국 축구수도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최 감독에게 전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최 감독은 14년 동안 전북현대모터를 이끌며 프로축구 K-리그 최약체로 평가됐던 팀을 아시아 최강팀으로 만들어 전주시민에게 큰 감동과 행복을 선사해왔고 올 시즌을 끝으로 전북현대를 떠나 중국 텐진 취안젠으로 떠나게 됐다.

특히, 최 감독은 지난 2005년 전북현대모터스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K리그 2회 우승과 아시아챔피언스리그 6회 제패, FA컵 1회 등 총 9회의 우승을 이뤄내고, K리그 최다 승점

과 전주월드컵경기장 홈경기 최다 관중 수 기록을 잡아치우는 등 전주시 축구발전에 기여했다.

최 감독은 또 지난해 열린 '2017 FIFA U-20 월드컵' 전주 유치와 개막전 성공 개최에 앞장섰으며,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전주시 대표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주 지역 전북현대 후원의 집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선수단 행사에도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전주시역 내 초·중등학교 방문 축구클리닉, 진로체험교실 등을 운영하는 등 전주시민과 전북현대 축구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사랑을 실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제 곧 중국으로 떠나게 될 최강희 감독에게 전주시민들과 함께해온 지난 14년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구절초 교량공사 비리 공무원·브로커 구속

경찰, 뇌물수수·공여 혐의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공사 비리' 사건과 관련, 공무원과 브로커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정읍시청 공무원 A(41)씨와 브로커 B(51)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 등은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정읍시청 도시재생과와 함께 B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해 이들의 비리 개입 여부를 확인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교량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에게 특혜

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정읍시의회 소속 C(의원에 대해)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남편 살해한 60대 아내 구속영장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아내 A(6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자정께 남편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63)씨와 딸다름을 벌이다 둔기로 B씨를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쓰러진 남편을 방치한 채 잠이 들었고, 이튿날 집에 들어온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뉴시스

에이즈, 백 번의 검색보다 한 번의 검사로

전주시보건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캠페인

'제31회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을 맞아 지난 30일 전주객사 일대에서 전주시민에게 에이즈 예방법을 알리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캠페인이 열렸다.

이 행사는 전주시보건소(소장 송준상)가 청소년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이날 캠페인에서 △에이즈바로알기 리플릿 및 콘돔·핸드크립 배부 △관벨 전시 △즉석 에이즈 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무료 익명검사 안내 등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에이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에이즈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의해 면역계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에이즈 감염인과의 성 접촉 △감염된 혈액제제 및 수혈 △수직 감염 △주사바늘 공동 사용 등으로 감염된다. 에이즈는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98%이상으로 올바른 콘돔사용과 안전한 성관계, 조기검사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기침이나 재채기 등 보통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는다.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12주 후 검사받는 것을 권장하며, 전주시보건소를 비롯한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익명검사가 가능하다.

에이즈 초기에는 감기와 몸살 등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 증상만으로는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의심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에이즈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으로 자발적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 보호·지원을 위해선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즈에 대한 무료 익명검사 및 치료 상담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063-281-6344) 또는 에이즈 상담 지원센터(1599-8105)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신중앙시장 포장마차 거리 개장

전주시와 전주신중앙시장 상인회, 전주신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은 지난 1일 신중앙시장 중앙무대에서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 개장식'을 가졌다.

신중앙시장 중앙 통로에 설치되는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는 과거 시장 인근에 밀집해 있던 포장마차촌을 되살려 전통시장과 인근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포장마차 15대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장년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포장마차 먹거리부터, 젊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뽕잎김밥, 스테이크 등 간편 먹거리까지 다양한 먹거리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